

주간 증시 포커스

美, 시리아 공습 변동성 확대
화학업종·전기차 관련주 주목
증권주 저점 매수 고려해 볼만

글로벌증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에 일회일비하고 있다. 지난주 미·중 무역분쟁은 보아오펜에서 시진핑주석이 제시한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강화, 자동차 관세 인하, 개혁개방 확대 등과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유희적 반응 등으로 긴장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화학무기 사용 의혹이 있는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 발언으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켰다. 주 후반 시리아 공습가능성이 완화되는 듯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밤 9시에 TV 생중계 연설을 통해 시리아 화학무기 관련 시설에 대한 공습명령을 발하고 미사일 공습을 시작했다.

미국 공습은 미국증시 종료 이후 발표돼 오늘 아시아 증시를 시작으로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1.05% 상승하며 245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지수는 예상을 뛰어넘는 코스닥벤처펀드의 인기에 힘입어 2.75% 상승하며 891포인트로 마감했다.

필자가 지난 2일자 본 코너에서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코스닥150에 편입되는 코스닥대형주에 관심을 권유한 바 있다. 지난 5일부터 설정이 시작된 코스닥벤처펀드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1일까지 6894억원을 돌파했다. 당초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설정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는 공모펀드의 경우 7개공모펀드 1254억원이 설정되었고(추가 가입가능) 1억원 이상 가입해야하는 사모펀드에서도 41개 운용사가 61개 사모펀드를 출시해 5693억원이 설정됐다.

공모형 벤처펀드는 신규 상장되는 코스닥기업과 시가총액 상위기업에 중심으로 편입할 예정으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시가총액상위 제약바이오주와 게임·인터넷·IT 장비주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모형 벤처펀드는 벤처기업 및 코스닥의 신규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사채(CB)를 편입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로 일반적으로 3년간 펀드를 운용하게 된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설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닥시장 활성화의 밑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고 결론적으로 이익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기관수급이 양호한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는 미국과 영국의 시리아공습으로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며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러시아의 반응에 따라 변동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초 하락 이후 주 후반 실적발표가 증가하면서 점차 실적장세로 전환되기를 기대해 본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부각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자는 유가상승 수혜주인 화학업종과 전기차 관련주에 주목하고 일반적으로는 유가 변동에 영향이 크지 않은 IT 및 코스닥업종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또 글로벌금리 상승 수혜주이며 최근 조정폭이 크게 보인 증권주 저점매수도 고려해볼만 하겠다.



정계두

<유니투자증권 광주지점장>

지난해 돼지·닭고기 가격 상승... 소고기만 하락

'2017년 축산물 유통실태'
돼지 3.2%, 닭 10.2% ↑
축산물 유통비용률 45.8%
소고기 물량 증가 1% 하락

지난해 쇠고기를 제외한 돼지고기·닭고기·계란 등 대부분 축산물의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축산물의 소비자 가격 중에서 유통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5.8%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축산물 유통 정보를 조사·정리한 '2017 축산물 유통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쇠고기를 제외한 돼지, 닭, 계란

등 축산물의 가격이 전년보다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는 출하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에 따라 전년과 비교해 소비자 가격이 1.0% 하락한 반면,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가격이 3.2% 상승했다.

닭고기와 계란은 상반기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소비자 가격이 10.2% 상승했다.

계란의 경우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한 소비 기피 현상으로 하반기 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계란 소매가격(특란 30개)은 살충제 계란 파동이 절정이던 2분기 8362원까지 올랐다가 3분기 5932원으로 떨어졌다.

또 주요 축산물의 유통비용률은 45.8%인 것

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6년 46.5%에 비해 0.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유통비용률은 소비자 가격에서 농가수취가격을 제외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닭고기의 경우 유통비용률이 54.8%로 가장 높았으며, 쇠고기 48.0%, 돼지고기 43.7%, 계란 37.5% 순이었다.

쇠고기와 닭고기는 전년과 비교해 각각 2.6%포인트, 3.1%포인트 상승했다. 돼지고기와 계란은 각각 1.8%포인트, 9.8%포인트 감소했다.

전년과 비교할 때 쇠고기와 계란은 대형마트에서 판매할 물량 비중이 많이 증가했으며, 돼지고기는 정육점, 닭고기는 슈퍼마켓의 유통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쇠고기의 소매단계 유통비용률은 대형마트가 4.2%포인트 증가한 것에 비해 식당에서는 3.1%포

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의 경우 정육점 비율이 4.8%포인트 증가했다.

닭고기는 슈퍼마켓이 5.5%포인트 올랐지만, 일반음식점이 3.8%포인트 떨어졌다. 계란은 대형마트의 유통비율이 4.9%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보고서에는 주요 축산물의 유통 가격, 경로, 비용 등이 담겨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소·돼지 부산물, 수입산 쇠고기, 수입산 돼지고기 등 기존 8개 대상 품목에 수입 쇠고기 부산물, 수입 돼지고기 부산물을 추가해 총 10개 품목을 조사·분석한 자료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축산 전문 포털 사이트 축산유통정보종합센터(www.ekapepi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농심(農心) 채용 경제사업장 현장견학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우수직원들이 '농심(農心)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경제사업장을 방문하는 현장견학을 다녀왔다. 이들은 농산물 유통 과정을 체험하는 등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을 만들기 위한 사업추진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전남지역 경제사업장 현장견학 '농심 찾아 떠나는 여행'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본부장 유해근)가 지역 농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장을 찾아가는 등 지역 농업인들과의 교감에 나섰다.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15일 '농심(農心)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테마로 전남지역 경제사업장을 방문하는 현장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올해 4분의 1분기 사업추진 성과가 뛰어난 지역 내 우수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사기진작과 농심(農心) 함양을 위해 진행됐다.

참가 직원들은 대한민국 고품질 농산물 유통의

메카인 농협유통 양재점과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전국에 공급하는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방문했다. 또 전남지역 423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친환경과일 간식을 공급하는 장성 삼계농협산지유통센터(APC) 등을 찾아가 우리 농산물의 유통과정에 대해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농업인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들과 교감하는 등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을 위한 사업추진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유해근 본부장은 "농민들이 가장 애절하게 바라는 것은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받고 판매하는 것"이라며 "절박한 농민들의 심정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경제사업장을 견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협은행 국민의 농협" 구현을 위해 농협법 제1조에서 기반한 농심(農心)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손익목표 달성을 통해 농협은행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농협은행 3·1 운동'을 시행 중이다.

한편,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에서는 '농업인이 행복하면 국민의 농협' 구현을 위해 농협법 제1조에 기반한 농심(農心)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손익목표 달성을 통해 농협은행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농협은행 3·1 운동'을 시행 중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채소값 줄줄이 하락

미나리 35%·갓 37% ↓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생육이 빨라지고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채소값이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출하되지 않고 저장됐던 채소까지 시장에 나오면서 채소값은 당분간 하락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불과 한 달 새 가격이 20~30% 떨어진 채소가 많다. 미나리 1kg의 가격은 13일 기준 평균 4800원이었다. 한 달 전 7380원에서 무려 34.9%나 떨어졌다.

갓 가격의 하락 폭은 미나리보다 크다. 1kg 평균 가격은 한 달 전 3710원이었으나 13일에는 2350원으로 36.6% 하락했다. 식탁에 자주 오르는 오이는 10개 기준 같은 기간 1만350원에서 7680원으로 25.7% 내렸고 애호박도 개당 평균 2020원에서 1560원으로 22.7% 떨어졌다. /연합뉴스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발대식

농협 전남지역본부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15일 전남도와 함께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추진 발대식을 갖고 올해 농작업 인력 19만명을 알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1개 지역농협에 설치한 지자체협력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2개소로 확대, 국고지원사업 14개소를 추가해 올해 총 36개 지역농협에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24억2600만원(지자체 14억7400만원·국고 9억5200만원)이다. 지자체 사업은 전남도와 시·군이 50%, 농협이 50%를 부담하고, 국고사업은 농식품부가 70%, 농협이 30%를 각각 부담한다.

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농작업에 참여한 구직자에게는 농작업 상해보험 무료가입 및 작업장까지 이동에 따른 교통비, 관외 거주자 숙박비, 현장실습 교육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 외 유입인력의 농촌일자리 참여 확대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박기용기자 pboxer@

Advertisement for G.O. Auction real estate services, featuring contact information (010-6211-4585) and a list of recommended properties for sale and lease in various locations like Gwangju and Jeonnam.